

# 都市設計의 基本性格

李 弼 遠

(건설부 기정)

## I. 緒論：都市設計에 대한 要請과 概念上 混亂

近來 都市計劃 및 建築分野에서 都市設計(Urban design)에 대한 関心이 相當히 높아져 討論과 研究가 活潑하여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制度的 研究까지 示圖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게 都市設計가 要請되고 있는 背景을 잠시 살펴보면, ① 우선 從來의 都市計劃 및 開發體制가 가진 限界-劃一的, 廣域的, 平面的, 規制方式 및 計劃과 設計를 連結하는 中間段階 缺如-를 認識, ② 60~70年代 開發, 物量爲主의 都市行政方向의 結果로 나타난 都市構造와 空間의 歪曲과 아울러 不良·低質化된 都市形態에 대한 批判과 反省에서 緣由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이와 아울러 70年代 後半부터의 半月等 新都市建設等과 一部 都市 및 建築界人士의 先驅的 研究와 自覺을 통한 基盤造成이 이루어져 왔는데다가, ④ 最近 先進國에서 同分野의 理論과 經驗이 本格的으로 傳達되면서 어느 程度 實用化段階까지 進척되었다고 하겠다. ⑤ 한가지간과할수없는 獰연한 事實은 우리의 各種 法令體系가 거의 日本것을 踏襲하다시피 하고 있고 日本은, 80年을 전후하여 都市設計에 대한 法的 制度化作業이 結實을 맺어 「地區計劃」으로 定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關係當局에서도 이에 대한 作業을 加速化하고 있는데도 影響을 받고있는 것 같다. 아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不遠間 좋은 結實을 맺어 우리의 實情에 適合한 制度와 技法들이 創案되기를 期待하는 바 크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비록 때늦은 感도 있으나 일단은 바람직한 方向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행스럽고 期待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중 염려스러운 것은 우선 「都市設計」라는 手段이 都市를 살기 좋고, 意味있는 場所로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手段의 하나이지 都市問題를 治癒할 수 있는 萬病通治藥이 아니라는 點에 대한 認識이 不足한 面과 또 하나는 「都市設計」의 本來의 概念이 正確히, 充分히 理解되지 못한 채 相當히 斷片的이거나, 一面만을 強調하여 主觀的으로 使用되고 있는 事實이다.

이러한 混亂의 根本理由는 外來文化에서 發生한 새로운 制度 또는 概念을 導入, 受容 할 때 흔히 犯하기 쉬운 잘못

으로 ‘充分히 選擇的으로, 批判的으로, 主体的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模倣이나 導入活用に 급급함’에서 由來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都市設計」라는 外來的 制度가 그 一部 또는 全部가 地域間, 世帶間 隔差를 보이면서 서로 融合되지 않고 混在되거나, 아니면 變質된 過去의 樣式이 外來的 類型과 적당히 妥協하여 一時的으로 適應을 하게되는 過渡的 混合狀態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結局에는 우리사회 및 文化에 있어서 適合性(relevance), 正體(identity)와 統合性(integration)에 대한 要求를 充足시키지 못하므로서 土着化하여 우리의 것으로 變容, 再創造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混亂과 試行錯誤를 불러 올 우려까지 있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都市設計라는 새로운 概念을 우리것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우선 이에 대한 概念上의 混亂과 誤解를 우선 바로하는 것이 첫걸음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現行의 價值規範 및 慣行간의 一貫성과 體系性을 確立하는 文化적 統合性을 充足시키도록 하는 것이 制度·定着化的 다음 課題로 생각한다.

이러한 見地에서 本稿에서 都市設計(Urban design)에 관하여 現在 通用되고 있는 여러가지 見解를 整理·分類하고 各各自 지닌 限界와 問題點을 밝히고, 아울러 그 示唆하는 바를 살펴봄으로서 同 分野가 正確히 무엇이며, 또 基本性格이 무엇인가를 實際的(operational)인 面에 置重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提示되는 見解들은 國內外 關係雜誌와 書籍等 文獻調査에서 나타난 것과 關係業務에 從事하는 實務者와의 對話를 통하여 나타난 것을 整理하여 分類한 것으로서 相互間 重複되거나 그 区分이 多少 애매한 點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II. 本論：都市設計에 대한 諸見解와 內容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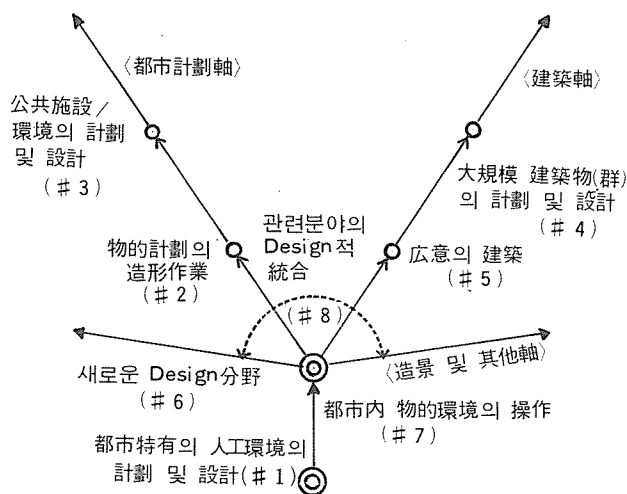
現在 通用되고 있는 都市設計라는 새로운 Design profession은 美國에서 1954년에 最初로 펜실베니아 大學에서 獨立된 科單位로 創設되어 27년이 經過하여 그 方面에

相当한 理論的 研究와 實際로 設計等의 實蹟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에 대한 定義에 대하여는 아직도 專門家 사이에서 爭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狀態이다. 바꾸어 말하면 1957년에 벌써 Olindo Grossi가 提起한 다음의 質問에 아직도 明快히 答辯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Urban design은 사람, 건물, 空間, 써비스등에 대하여 人口稠密한 地域에서 人間環境의 体系를 세워 어떤 秩序를 부여함으로써 意味있고, 生命力있으며, 아름다운 經驗을 할 수 있는 어떤 關係를 設定하는 生活의 藝術이 아닙니까?”

最近에 와서는 Gonathan Barnett 같은 사람은 빈정대기를 ‘都市設計는 免許없이 建築設計에 從事하는 行爲’라고 하고 있으며 Charles Brewer는 ‘都市設計는 建築이다’ 그리고 David Wallace는 ‘都市設計는 假說과 檢證을 反復하는 科學이다.’라고 말하는등 실로 多様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混亂은 Kevin Lynch와 같이 Urban Design 대신 City Design이라는 用語를 쓰자는 提案과 Urban Design Programming이 더 適合한 用語라는 指摘까지 나오고 보면 極에 달한 느낌이다. 그중에서도 60年代 末을 전후하여 New York市에서 Urban Design을 實務担当한 Gonathan Barnett의 才氣있는 表現과 같이 ‘建築物을 直接 設計하지 않고도 都市를 設計한다’ (Design city without designing buildings), 核心을 찢른 定義는 없다고 보겠다.

이러한 多様な 見解들은 우리나라에서도 都市計劃中 物的計劃(physical planning)의 一部로 보거나, 建築(群) 또는 建築計劃으로 理解하려는 傾向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多種多様하게 通用되고 있는 見解들을 그 基本主張과 成長背景에 따라서 分類를 하여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 系統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見解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說明을 함으로서 正確한 概念把握을 期하며 이를 통하여 도시설계의 基本性格을 確實히 할 수 있는 몇가지 要素를 發見하고자 한다.

1. 見解 # 1 : 都市設計는 都市区域內에서 都市가 가지는 特有한 狀況에 適合하게 建築物等 人工環境을 計劃·設計하는 行爲이다. (그림에서 # 1)

이러한 見解는 建築家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都市設計에 대한 正義로서 이 觀點에 의하면 어떤 建築物群이나 個別 建築物이 立地한 垜地 및 그 周圍가 都市內에서 서로 주고 받는 特有의 與件(Urban setting)이 있게 되며 이러한 것들을 分析하여 發見하고, 이에 機能적으로, 社會적으로, 文化的으로 또 美学的으로 適合하게 대처하는가에 都市設計의 焦點을 두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建築士紙 最近号에 보면 中東地域에 設計한 商街 및 停車場 複合建物에 대한 設計概要에서 ‘本 project는 urban design적 觀點에 역점을 두고 설계되었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見解를 가지고 都市設計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果然 建築家가 자신이 設計하고 있는 建築物을 周圍환경과 잘 關連을 시키려고 最善을 다하는 것만으로 都市全体로서의 形態와 空間의 質은 保障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否定的이다. 왜냐하면 우선 建築家는 자기가 의뢰받은 垜地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 보거나, 直接의 影響力을 미친 方途와 재간이 없다는 사실과 또하나는 現代에 들어와서 建築家의 地位와 役割이 從來의 Master Builder에서부터 돈많은 건축주에 고용된 기술자며 利益의 代辯者로 低落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建築家가 지내왔던 技芸가 이제는 都市計劃, 造景 등으로 分化하여 나감으로서 無氣力化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建築物이라는 部分의 集合이 都市라는 全体가 저절로 된다는 關係가 成立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個個의 建築物을 設計하는것 외에도 都市를 設計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都市設計의 對象地域을 「都市」로 限定시키는 경우, 實際로 郊外住宅地, 新都市開發等 立地가 기존 都市區域이 아니더라도 都市로서의 機能, 構造, scale을 가지는 事業들을 除外시키게 된다. 또한 国土의 都市化추세에 의하여 都市와 農村의 区分이 모호하여 가는 실정으므로 設計對象의 立地로 都市設計를 定義하는것은 非實際的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이 見解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점은 都市設計는 都市가 가지는 活動主体(人間), 特殊機能(人的, 物的의 交流와 消費)과 空間的 領域(주로 Built-up area로 人工的 環境)의 3大 構成要素가 形成하는 都市特有의 狀況에 우선 適合하게 하는 것을 目標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都市設計는 이러한 消極的인 適應(adapt) 보다 變改(adjust)라는 積極的인 面이 強함은 다음에 說明하고자 한다.

2. 見解 # 2 : 都市設計는 都市計劃中 物的計劃(ph-

ysical planning) 중에서 都市空間의 造形과 視覺의 意味를 주로 다루는 技法이다. (그림에서 # 2)

이러한 立場은 다음과 같이 都市設計를 說明하고 있는 존 크릭켄(John Kriken)을 引用해 보면 확실하다.

“都市設計는 都市計劃의 한 分科로서 주로 人間과 物的 環境간의 機能的, 視覺的 關係를 取扱對象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關係를 改善하기 위한 手段과 方法에 대하여도 아울러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都市設計는 都市計劃分野가 다루고 있는 住居問題, 交通問題, 綠地 및 空地問題, 公共施設의 設置問題等과 直接 關聯을 맺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努力하게 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定義로 미루어 볼때 이 見解의 바탕은 종래의 「都市計劃」分野의 領域을 擴張·補強시키고자 하는 立場이라 하겠다. 近來 都市計劃分野의 趨勢가 計劃이 追求하고 있는 目標을 최종적으로 三次元的 物的인 形態로 表現하는 從래의 Master plan의 立場에서 어떤 目標을 設定하고 이의 達成을 위한 政策과 行動의 樹立과 執行에 그 觀心이 옮겨감에 따라, 都市計劃이 最終적으로 나타나는 都市形態와 空間의 造形的 側面과 視覺的 意味에 대한 考慮가 소홀하게 되고 있는 점에 대한 反省에서 要請되고 있는 見解라고 보겠다. 바꾸어 말하면 종래의 都市計劃方式인 計劃家가 土地利用計劃(Land use plan)이라는 平面的이고 包括적이고 劃一的인 바탕만을 提示함으로서 建築家나 土木設計家가 特定한 建物이나 構造物을 設計함에 있어 都市計劃에서 얻어낼 수 있는 資料나 지켜야할 指針은 대부분이 道路線과 建築線과의 關係라든지, 容積率, 建蔽率등과 같이 극히 抽象的이며 平面的인 程度에 不過하게 되는 것이 現行的 都市計劃 및 開發制度의 性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都市計劃과 建築·土木·造景等 細部設計 사이에는 空隙이 생기게 되어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하여는 計劃家(planner)중에서 design에 關한 素養이나 經驗이 있는 사람이나 都市計劃中 物的 計劃을 三次元的으로 表現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은 近代의 都市計劃의 必要性和 役割을 認定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都市設計의 前提가 되는 都市機能과 構造의 分析과 設定 등 計劃에 關한 일체의 事項은 計劃家에 맡기고 오로지 同計劃을 視覺적으로 아름답게 處理하는 것만을 專担하므로써 計劃家가 設定한 틀위에서 裝飾家的 役割을 하는 技術이나 技法으로 都市設計의 領域을 限定시키는 点이다. 이렇게 都市設計를 景觀爲主로 본 것이 都市美化運動(City beautiful movement)의 特徵이었던 것이다.

다만 實際에 있어서 都市設計의 執行을 保障하기 위하여 都市基本計劃(City comprehensive plan)에 包含시키거나 그의 一部로서 作成하여 施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物的計劃의 造形的 側面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見解에서 우리에게 示唆하여 주는 것은 都市設計

는 物的計劃이든 非物的 計劃이든 都市計劃-都市라는 領域에서 土地, 人口, 活動의 三要素를 効率的으로 配分-의 바탕에서 출발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都市計劃이 가지는 公共作業의 性格(公益을 위한 民間開發活動의 規制와 指導)을 都市設計도 부여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点에서 都市設計는 주로 私적으로 營爲되는 建築과 区分되기도 한다.

3. 見解# 3 : 都市設計는 都市公共施設이나 公共環境(public environment)에 대한 計劃·設計行爲이다. (그림에서 # 3)

都市設計를 위와 같이 理解하는 사람들은 urban design 보다는 civic design으로 보는 立場으로서 都市의 街路網, 公共綠地와 道路等 都市下部構造物(Infra-structure)로 構成되는 都市의 骨格을 어떻게 緊密하고, 統合되고, 調和되면서 또한 아름답게 設計하는가에 関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國의 著名한 建築家겸 都市計劃家인 데이빈 크레인(David Crane)은 「千사람이 設計하는 都市」라는 提案에서 현재 混亂스러운 都市景觀에 視覺的 秩序를 부여하는 方法으로서 都市造形에 必須的인 要素인 主要 公共建物, 空地와 綠地, 交通과 動線, 供給處理施設등의 物的 存在를 미리 設計하고 建設하여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외의 余白을 民間部門이 設計·開發하여 채워나가는 手法을 說明하였는데 이 概念이 바로 公共施設이나 環境의 設計가 바로 都市設計라고 보는 立場을 代辯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都市라는 環境에서 公共環境에 대한 設計의 質(quality of design)이 都市形態와 空間造形에 決定的인 要素로서 民間部門의 개발에 先導的인 役割과 指針을 提言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觀點은 자칫하면 環境決定論의 立場에 빠져 都市의 物的 要素인 施設, 裝置, 場이 市民의 行態를 나아가 生活의 質을 左右한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都市의 主体인 市民과 實제의 知覺과 的 거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가능성이 큰 것이며, 아울러 都市를 生長·變化하는 進化論的 立場에서 볼 때 都市構成要素인 主体, 機能, 空間을 어떻게 動的으로 結合시킬 수 있는 形態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疑問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點은 都市設計가 建築物, 構造物등을 個別的으로 設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떤 틀(frame-work)이나 構造(structure)를 設定하는 것이라면 어떤 公共領域—그것이 public space 이건 semi public space 이건—에 대하여 取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 見解# 4 : 都市設計는 大規模 建築物 또는 建築物

群에 대한 計劃 및 設計行爲에 不過하다. (그림에서 # 4)

캔딜리스(Georges Candilis)는 일찌기 「도시설계는 큰 규모의 건물설계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던 적이 있다. 이와 같이 都市設計를 都市再開發이나 住居団地開發에서 나타나는 超大型建築物(mega structure)이나 群을 이루는 建築物에 대한 計劃이나 群造形問題를 다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建築家가 그 以上の 建築物 또는 超大型建築物를 設計하게 될 때에는 그가 하는 行爲自体가 바로 「都市設計」라고 보는 것이며 그때 建築家는 바로 「都市設計家」의 役割을 遂行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을 잘 살펴보면 「建築」界가 가지는 오만과 편견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첫째가 建築에 있어 設計對象이 크건 적건 간에 또는 簡單하건 複雜하건 간에 設計方法이나 過程 또는 使用技法은 큰 差異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것은 비트루비우스(Vitruvius)가 建築家를 万能人(universal)으로 본 古典的 建築家觀에다가 近代에 들어서 바우하우스의 理論家들이 主唱한 바와 같이 디자인 原理는 작게는 스폰하나에서 크게는 都市全体의 設計까지 同一하게 適用될 수 있다고 보고 「부엌을 설계하는 方法으로 우리는 都市設計를 배우며, 都市設計로 住宅設計를, 극장설계로 환경계획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建築의 正統·保守意識이다.

둘째는 建築家는 어떤 프로젝트를 設計할 때는 計劃부터 執行까지의 全般的인 過程을 直接 調整하고 統制하여야 한다는 master builder의 立場을 固守하는 態度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見解가 가지는 問題點은 무엇인가? 우선 스케일이 다르다 하는 것이 그 자체는 量的인 面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 이외에 質的인 面에서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며 物理的인 面에서 다른 것 이외에도 化學的인 面에서도 전혀 相異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차이의 實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道具(tool)와 接近方法(approach)을 필요로 하는 것임은 顯微鏡과 望遠鏡의 用途의 차이를 미루어 보면 確實히 알 수 있다. 또한 通常都市開發에 있어 大規模 施設物의 建設이라고 하는 것은 그 自体로서 完成되어 끝나는 面보다는 隣接하고 있는 주위에 대하여 現在 및 將來에 대한 어떤 틀을 提供하게 되는 것임을 비추어 볼 때 都市에 있어서 어떤 施設을 그 하나만의 獨立된 單位로 設計할 수 있다는 생각은 系統的 接近方法에서 볼 때 온당치 못하다.

또한 見解 1을 批判할 때에는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建築物이 비록 相當한 規模나 數로서 하나의 單位를 이루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個體로서의 主張과 利益을 主張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 現代의 자본주의적 狀況이며 垆地라는 領域에서 最大限의 自由를 追求하게 되는 屬性이 있는 것이 建築家와 建築主가 追求하는 共同目標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面에서 都市라는 거대한 有機體(비록

실제적인 面에서 地区나 地域을 하나의 空間單位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음)로서 보고 이의 秩序와 調和를 追求하게 됨으로서 全體로서의 立場과 意味를 다루게 되는 都市設計의 基本屬性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立場에서 都市設計의 正確한 理解를 위하여 提示하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그것은 都市設計가 建築物群을 주로 取扱하게 되므로 建築物(群) 및 其他 構造物(群)을 相互간 調和되게 垆地(site)에 配置하는 藝術인 団地計劃(site planning)이야말로 都市設計分野에 基本的이며 必須的으로 使用되는 技法이라는 事實이다. 케빈 린치(Kevin Lynch)의 말대로 団地計劃이라는 藝術은 「立地를 分析하고, 場과 行動을 組織하며, 交通과 動線系統, 審美的 形態를 다루며 規制와 統制와 아울러 垆地의 管理維持에 관한 問題를 다루는 綜合的인 分野」라고 說明하면서 都市計劃家, 建築家, 造景家, 그리고 土木技術者에게 모두 필요한 分野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都市設計에 있어서도 最終配置予想圖라고 할 수 있는 Illusative site plan이 最終結果物의 하나로서 作成되고 있다.

이러한 見解에 덧붙여서 또하나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一線 實務者간에는 所謂 「建築計劃」을 都市設計와 混同하고 있지 않나 하는 事實이다. 現行 法令上 都市再開發事業計劃을 樹立할 경우 作成하게 되어 있는 「建築物의 位置, 容積率, 建築面積, 높이, 配列 및 用途……」 등에 관한 計劃과 또하나 特定街區整備區域內에서 「建築物의 높이·規模, 모양 및 壁面의 位置 등을 表示한 建築計劃」을 樹立하는 것이 바로 都市設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都市設計의 結果로 同計劃을 作成하여야 하는 필요조건을 말할지는 몰라도 同計劃이 作成되었다고 하여 도시設計가 되었다고 하는 充分條件이 만족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即 同 建築計劃의 內容이 都市設計에서 作成하는 最終配置予想圖와 表示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包含하고 있다고 보는데서 混亂이 基因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兩者의 基本性格은 서로 判異한 것으로서 都市設計는 어떤 計劃 또는 空間單位를 對象으로 그것이 경우에 따라 地区, 地域規模이거나 혹은 都市全体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立地가 都市全体와 가지게 되는 特有的 狀況 또는 脈絡(Context)을 形成하고 있거나 앞으로하게 되어 있는 몇개의 物的 基本體系(system)인

- ① 成長發展體系(Growth pattern management)
- ② 土地利用體系(Land use)
- ③ 交通 및 動線體系(Traffic movement)
- ④ 綠地 및 空地體系(Open space)
- ⑤ 公共施設 및 環境體系(Public facilities and environment)
- ⑥ 構造物의 形体 또는 量塊體系(massing) 등에 관한 外的으로는 틀(frame work)과 內的으로는 構造(structure)를 設定하거나 關係를 賦與하는 公共의 行爲로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反面에 「建築計劃」의 性格은 그 內容과 樹

立過程에 있어 道路, 公園, 廣場等 公共施設에 대한 位置, 規模에 대한 事項과 都市計劃과의 關係라는 事項을 包含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前述한 바 있는 物的 基本體系중에서 ⑤ 번째인 建築物等 構造物의 形体에 대한 事項에 置重하고 있는 實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關係設定이라는 側面보다는 事業計劃의 立體的 表現의 性格으로 理解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都市設計라는 手段-즉 從來의 劃一的이며 平面的인 地域 地區制(Zoning)의 限界를 克服키 위하여 나온 것으로서 對象地域 또는 地區마다 土地利用, 交通等에 관한 基本들을 設定하는 設計를 하고 이에 法的 拘束力을 붙여 施行하는 裝置-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점인 것이다. 다만 現行 法令에 規程되고 있는 類似制度中에서는 住宅建設促進法과 建築法施行令에 의하여 作成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 地區開發基本計劃」의 性格이 都市計劃上 土地利用體系를 變更할 수 없다는 면을 除外하면 이미 說明한 都市設計의 趣旨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

#### 5. 見解 # 5 : 都市設計는 廣意의 建築일 뿐이다(그림에서 # 5)

이러한 생각은 일찌기 1965년에 都市設計에 대한 최초의 教科書라고 할 수 있는 著書인 「都市設計: 都市와 邑落의 建築(Urban Design; the Architecture of Towns and cities)」의 제목에서 잘 表現되고 있다. 이러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建築家들로서 「建築」을 環境의 計劃 및 設計分野에 있어 「母藝術」로 보고, 앞으로 가능한 建築의 領域을 固守하거나 또는 더욱 넓혀서 從來의 主導權을 Design Profession에서 계속 확보하고 싶어하는 希望과 欲求를 가지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建築家들이 具備하지 않으면 안되며, 앞으로 建築教育에서 必須적으로 要淸되는 것은 從前과 다른 設計方法論-本質적으로 聯合學問的(Inter disciplinary)한 것이거나 또는 都市計劃分野나 造景分野等 關聯 專門分野에서 使用하고 있는 計量的이며 分析的인 技法들-이라고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에서 20여년전 建築教育의 將來에 대하여 심각히 論議할 때 提起된 바 있는 “今後의 建築教育의 課題는 建築家들이 어떻게 都市에 대한 設計를 할 수 있도록 訓練시킬 수 있는가?” 질문에서 이러한 希望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대체 實現 가능한 것인가? 하는 매우 實際的인 질문이 제기되는데, 비록 都市設計가 三次元的인 問題를 주로 다루게 되므로 空間에 대한 感覺과 操作에 대한 素養이 不可避하게 要淸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現代와 같이 專門化되어 가고, 分業化되어 가는 社會의 傾向에 비추어 볼 때 部分으로서의 自由와 個性追求라는 建築의 特性과 全体로서의 秩序와 調和라는 都市가 各各 追求하는 相互對立的인 目標를 同時에 滿足시키는데 필요한 諸般의 手段·地位를

오늘의 건축가가 갖추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多樣한 技術과 知識과 經驗을 同一人이 兼備하여 실제로 發揮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從來의 母藝術的인 建築分野가 都市計劃, 造景等이 19세기 初를 전후하여 學問적으로 分化하여 獨立함으로서 建築이 가지고 있던 綜合的 機能이 喪失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앞서 말한 都市計劃, 造景, 其他 土木等 關聯分野와 建築分野를 함께 Design적으로 統合할 수 있는 分野가 要淸되어 오고 있는 時代的 傾向 둘째는 建築家와 建築主 그리고 入住者와의 關係가 現代에 와서는 찰스·웡크스(Charles Jencks)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체제가 獨點資本主義化함으로서 建築家는 고용된 기술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러한 建築家는 入住者(user)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채 設計를 하고 있다. 셋째는 建築理論의 關心分野가 前述한 바와 같은 外向的인 方面的인 方面의 研究를 指向하는 것이 아니라 最近에 와서는 內向的인 微視化하여 認識論(Perception), 味論(Semiotics) 그리고 行態論(Behavioralism)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하는 事實이다.

이러한 事實을 미루어 볼 때 建築이 都市設計의 領域까지 包含할 수 있다는 主張은 時代錯誤的이며 실제로도 不可能한 虛勢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절실히 要求되는 것은 人間과 그가 만든 모든 人工物의 關係를 究明할 수 있는 人工科學(The Science of the Artificial)-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이 主唱한 分野로서 自然科學(Natural Science)과 對照됨-일 것이다.

다만 이렇게 都市環境의 設計를 統合할 수 있는 專門家나 專門分野의 必要性을 強調하는 立場은 앞으로 都市設計成立의 基本性格을 理解하는데 큰 참고가 된다.

#### 6. 見解 # 6 : 都市設計는 建築分野나 都市計劃分野하고도 전혀 다른 새로운 Design 分野이다. (그림에서 # 6)

이러한 主張은 이제까지의 5개의 見解가 어떻게든 既存의 都市計劃分野나 建築分野의 領域과 關聯시켜 보려는 것이었음에 비하면 對照的인 것이나 이에 대하여 즉각 根本的인 疑問이 提起된다. 그러면 무엇이 都市設計인가? 그리고 누가 都市設計家인가?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解答을 우리가 지금 명쾌히 내릴 수 없다는 事實에 직면한다. 모든 近代學問이 成立되고 發展되어 온 過程을 살펴보면 獨自的 領域과 方法論을 開發하는 데에는 많은 時間이 必要한 것이 認定되므로 언젠가는 都市設計分野 자체로 學問的인 獨立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現時點에서는 都市設計가 要淸된 것은 從來에 建築이 担当 하였던 人工環境의 綜合的 計劃 및 設計機能이 造景, 都市計劃 등으로 細分化됨에 따라 効率的이며 相互有機的으로 同機能을 遂行할 수 없게 되는 實情에 부딪침에 따라 이들 Desi-

gn 關聯分野를 統合하여야 할 必要에서 나온 것임을 미루어 볼 때 都市設計가 새로운 分野라고 할 수는 우선은 없다고 보겠다. 오히려 建築·都市計劃·造景과 아울러 土木分野의 一部까지를 統合하는 關聯學問的(Inter-disciplinary) 性格으로 把握하여야 옳겠다.

一般的으로 말하여 都市設計家は 政策決定過程과는 無關한 立場에서 最終的 完成品(end state final product)로서 都市設計案을 作成·提示하는 것이 아니라 時間과 空間의 흐름에 따라 變化하는 價値와 機能의 바탕에서 都市의 造形을 左右할 만한 重要決定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指針이나 過程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면 그는 행하는 業務와 지니고 있는 技術에 따라서 建築家일 수도, 都市計劃家일 수도, 造景家일 수도 또한 土木技術者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都市의 造形이란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되는 意思決定的 過程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만큼 이러한 過程에 日常的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都市設計家라고 부를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都市設計家は 어떤 構想(Idea)에 대하여 創造的인 物的形態(physical form)을 賦與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야 하며 이점에서 都市形成過定에 參與하는 경제학자, 측량사, 설비기술자 또는 부동산개발업자등 餘他的 專門家와 区分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대한 우려의 또 하나는 物的 環境의 設計라는 Design profession分野가 기왕에 限定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한층 더 細分化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微弱함과 零細性을 면치 못하는 同分野의 分裂과 弱화를 招來하게 된다는 事實로서 이로 말미암아 環境에 대한 設計의 추세가 total environment를 目標로 하고 있음에 反하여 여러갈래의 斷片的이고 分化된 努力은 環境의 질을 低下시키는 逆機能을 招來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7. 見解#7: 都市設計는 物的 環境의 操作을 통해 環境의 質을 向上하는 公共의 作業이다. (黃 鏞周 博士 見解.그림에서 #7)

이제까지 나온 여러가지 見解중에서 가장 包括的인 것으로 생각되며, 그 内容속에 都市設計의 對象, 領域, 目標와 主体의 4大要素가 明確히 說明되고 있다. 이 見解에서 우선 注目되는 점은 都市設計의 役割에 대한 說明으로서 「都市의 物的 計劃(physical planning)과 建築·土木等 細部設計사이에 있는 構造的 空隙을 메워주는 役割로서 兩者를 연결하는 必須不可缺한 段階라고 提示하고 있다.

또 하나는 都市設計의 目標를 從來에는 美的 機能의 形態 또는 景觀等 造形의 側面을 주로 強調하여 왔으나 次元을 달리하여 「物的 環境의 操作을 통한 生活의 質向上」이라는 包括的인 目標를 提示한 점과, 이와 아울러 都市設計行為의 基本的 性格을 公益을 위한 民間活動의 規制

와 指導를 目標로 하는 公共의 作業으로 規定하고 있는 점은 正鵠을 찌르고 있다고 보겠다.

다만 이와 같이 包括的인 見解에서 한가지 소홀히 하는 점은 「都市의 物的 環境의 操作」이라는 都市設計의 對象과 行為의 具體的 内容에 대한 說明이 不充分하다는 것이다. 「土地와 施設이라는 2大 物的 要素를 가지고 立體的으로 都市空間의 質的·形態的 性格을 賦與하는 作業으로서 주로 外部空間의 性格을 規定하는 過程」이라는 說明만으로는 都市設計의 要素와 範圍가 확실치 못하다. 따라서 都市空間의 性格을 賦與하는 基本要素와 方法을 前述한바 있는 design structure, 關係, 體系(system) 또는 context等과 같이 具體的으로 提示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의 애매한 점을 보이고 있는 점은 都市設計가 중간에서 都市計劃(物的計劃)과 연결시켜 주는 「細部設計」의 具體的 分野속에는 建築·土木 외에도 造景도 포함됨을 확실히 하여 都市設計가 成立하게 된 時代的 背景에는 都市의 物的 環境에 대한 design的 統合을 期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都市計劃·土木·建築·造景·期他 關聯分野등으로 關聯된 關聯學問的(Interdisciplinary) 性格이 充分히 強調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에도 不拘하고 이 見解가 提示하고 있는 2가지 劃期的인 事實은 첫째, 環境의 計劃·設計행위는 근본적으로 連續的이고 總體的인 一連의 過程으로 보고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連續性이 缺如되어 있다는 指摘과 둘째는, 都市設計를 定義할 때는 都市의 物的 環境을 計劃하고 設計하는 一連의 行為를 놓고 이 '스펙트럼' 처럼 연속적인 作業過程中에서 어느 特定한 段階를 指定하여야 한다는 接近方法을 提示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動的인 意味에서 볼 때, 物的 環境의 計劃이나 設計行為의 結果가 施工用 圖書로 表示되는 경우를 各各 建築·造景·Engineering 등 細部設計의 領域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단지 外的인 틀이나 內的인 構造等 概念의 内容을 表示하는 것에 한정되면 이를 바로 都市設計 영역이라고 区分하여 말할 수 있다.

8. 見解#8: 都市設計는 都市의 物的 環境에 관한 design的 統合을 目的으로 한 綜合的 分野로서 都市空間이라는 多數의 主体와 存在의 場에서 그 틀이 共存할 수 있는 相互關係를 design 하는 것이다. (康 炳基 教授見解, 그림에서 #8)

이 見解는 都市設計에 대한 이제까지의 見解가 대부분 抽象的인 面에 흐른 점과는 달리 具體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대담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見解에 따르면 「都市設計가 하여야 할 일은 개개건축 相互關係와 참가의 system이나 design structure를 주는 일」로 보고 있으며 이는 同分野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점이야말로 建築造景等과 都市計劃의 兩分野

가 들어내고 있는 空隙을 메워주는 作業으로서 이를 위하여는 最終狀態(end state)에 대한 設計를 하는 것이 아니고 代身에 主体와 存在의 關係를 設定하는데 必要한 要素를 -過程, 体系(system)와 構造(Design structure)에 대하여 設計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要素중 体系에 대하여는 金基浩 教授가 구체적으로 說明한 바와 같이 「基本設計單位(Design unit)」내에서 都市設計概念(concept)를 構成하고 있는 여러 要素중에서 「公共設計 領域」인 5가지 基本体系인 土地利用, 차량통행, 보행자통행, 「오픈 스페이스」와 「매싱(massing)」을 設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公共設計領域을 構成하는 것이 이러한 5가지에 限定될 수는 없으며 都市는 잠시도 변화의 過程을 멈추지 않는 作用과 反作用이 存在하는 動的이며 生命力있는 存在로 보아야 하므로 成長發展의 方向과 패턴에 대한 体系가 前提되어야 하며 見解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都市公共施設 및 供給處理施設(utilities)에 관한 体系도 역시 都市設計에서 必須적으로 取扱하여야 할 것임은 結論부분에서 다시 說明하고자 한다.

아름은 都市設計에 대하여 그 成立의 理論的 背景을 正確히 提示하며 都市設計家의 實効的 位置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論文, 「都市設計의 定義와 範疇에 關한 小考」에서 내린 都市設計에 대한 見解中 評論하여야 할 점은 「關係」라는 文化人類學的인 語彙를 빌어 都市設計의 對象을 提示하여 次元을 높이고 있는 점과 아울러 都市設計와 他關聯分野와의 構造를 이론적으로 確實히 하고 있는 점이다.

다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關係」「過程」, 「Design structure」란 말을 보다 더 實際的이며 具體적으로 提示하지 못한 점과 都市設計의 特性을 design的 統合으로 說明하고는 있으면서 關聯分野와의 構造에 있어서 建築·造景 및 都市計劃分野 이외에 土木 및 都市工學分野와의 關聯性을 疏忽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 III. 結論: 都市設計의 基本性格 10가지.

이제까지 「都市設計」에 대하여 현재 國內外에서 通用되고 있는 一暗示的이든 明示的이든 一見解 8가지를 추려 그 內容, 基本立場, 問題點과 아울러 示唆點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論議를 통하여 밝혀진 都市設計의 基本性格을 綜合·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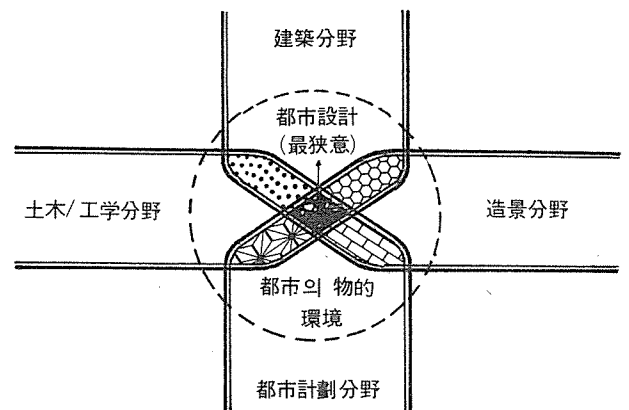
첫째, 都市設計의 基本性格을 파악할 때에는 都市的 物的 環境을 計劃하고 設計하는 一連의 연속적이고 총체적인 行爲로서의 作業過程에서 어느 特定한 段階를 지정하여 부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靜的인 概念이 아닌 動的의 概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都市設計의 役割은 巨視的의 「計劃」과 微視的의 「設計」 사이를 이어주는 連結裝置이며, 必須不可缺한 段階이다.

둘째, 都市設計行爲의 또다른 基本性格은 도시설계가 都

市計劃의 實踐을 위한 三次元的인 解析이라는 點과 都市設計의 結果는 民間部門의 開發行爲를 制約하게 되므로 公權力의 行使에 의한, 그리고 市民의 參與가 불가피한 公共의 作業이다.

셋째, 都市設計의 業務範圍는 設計對象의 規模, 스케일 또는 複雜性이나 施設의 種類(예 公共 民間)에 左右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公共環境을 構成하는 諸施設 및 設備가 重要한 設計對象임은 틀림없다

넷째, 都市設計分野는 環境의 計劃 및 設計를 既存의 여러 design分野와 다른 새로운 分野라기 보다는 都市計劃(특히 物的計劃)과 細部設計라고 부를 수 있는 建築, 造景, 土木, 都市工學등이 關連되는 關聯學問이다. < 그림 참조 >



다만 비교적 大規模 垆地內 그 以上の 建築物等 構造物群의 配置를 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團地計劃」(Site planning)이 基本手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都市設計에 의한 最終結果物은 形態(form)의 三次元的 計劃案이라는 End-state product이라기 보다는 主体와 物的 存在간의 相互關係를 設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關係를 형성하게 되는 2大要素인 外的인 틀(Frame-work)과 內的인 構造(Structure)를 設計하게 되는 것이며 그외에 必要한 体系, 過程, 原則, 指針과 基準을 提示하게 된다.

表現方式은 圖表, 系統圖, 地圖, 模型등을 주로 사용한다.

여섯째, 都市設計에서 設定하는 關係나 틀이라함은 어떤 設計單位(Design unit) - 地區, 地域 또는 都市全体가 가진 特有의 都市的 狀況(Urban setting)을 形成하는 要素로서 그 基本的인 것들은 ① 成長發展, ② 土地利用 - 立体的인 것 포함, ③ 交通 및 動線, ④ 空地 및 綠地, ⑤ 構造物의 量塊, ⑥ 公共施設 및 供給處理系統, ⑦ 開發의 戰略 및 프로그래밍에 대한 原則, 体系, 基準 및 過程을 表現하는 것이다.

일곱째, 都市設計를 통하여 設定된 틀과 構造는 建築·造景·土木等 細部實施設計作業에 投影되어야 하며 또한 環境되어야 한다. 즉 都市計劃의 三次元的 解析이며 細部設計에 따른 基本概念과 体系設定이 都市設計의 一次的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틀 구조자체는 蓋然性있는 提示(proposal)일 뿐이지 이대로 執行되어야 하는 것으로 強要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狀況變化에 対処하고, 創造性을 살리기 위한 対応機構가 確立되어야 한다.

여덟째, 都市設計는 반드시 모든 지역에 樹立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現行의 關係地域, 地區制(zoning)로서 不適當하거나 不充分한 경우이거나 相互補完的으로 使用될 수 있는 手段이다. 다만 都市設計의 樹立을 前提로 하는 開發規制로는 P. U. D., Design district, Special zoning distict, 地區群細計劃(Bebaungs plan) 등이 있다.

아홉째, 都市設計라는 分野는 本質的으로 그 性格이 建築·造景等 關聯 design分野의 統合이라는 面과 都市計劃과 細部設計사이를 이어주는 橋梁的 役割을 하는 「中間的 領域」이라는 面때문에 都市設計家라는 새로운 專門家

〈參考文獻〉

1. Richard Batholomæn, "Case studies in Urban desig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0.
2. Jonathan Barnett, "Urban Design as Public policy", Architectural Record, NY, 1974.
3. Paul Spreiregen, "Urban Design; The Architecture of Towns and Cities", Mcgraw-hill Co, NY, 1965.
4. I. C. M. A, "Th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Planning", Washington D. C, 1979.
5. Anthony Catanes, "Introduction to Urban Planning", Mcgraw-hill co, NY, 1979.
6. 黃鏞周, "都市設計에 관한 技法", 都市問題 1980. 5월호.

만이 都市設計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都市計劃家가 都市計劃을 수립한 후 이를 三次元的으로 解析·提示하여 주기위하여 都市設計를 作成하거나 (Top-Down方式 또는 巨視에서 微視的으로 接近), 이와는 반대로 建築家等 細部設計 전문가가 Bottom-up方式 또는 微視에서 巨視로 接近하는 方式으로 細部設計의 前提가 되는 틀 구조를 提案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實際的이라고 할 수 있다.

열번째, 都市設計分野가 취하고 있는 環境(주로 人工環境)에 대한 基本立場은 決定論的이 아니고 確率論的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都市設計는 最終狀態(End-state)를 提示하는 것이 아니고 主体와 物的 存在간의 環境 안에서 相互關係를 設定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主体인 市民의 參與裝置가 都市設計의 樹立 및 執行過程에 確立되어야 한다. 〈\*〉

7. 康炳基, "都市設計의 定義와 範疇에 관한 小考" 都市問題 1980. 2월호.
8. 康炳基外, "都市論", 法文社, 1979.
9. 林煥燮, "社會變動과 文化變動", 新東亞 200 号特集, 新東亞 問題論文選, 新東亞 1981. 4월호.
10. 黃鏞周, "都市計劃論", 未來産業社, 1978.
11. 許 範, "基本政策의 形成과 運用 中央公務員教育院教材, 1981.
12. 建築士紙, 1981. 8월호.
13. 拙 稿, "都市美觀管理方案研究 — 都市設計를 中心으로 —" 建設部 1981.
14. 金基浩, "都市設計와 地區計劃", 都市開發과 地區計劃制度의 導入을 위한 세미나 主題發表論文集 서울대학교 環境대학원.

\*\*\* 建築·環境·選書\*\*\*

◎ 全國有名書店에서 販賣中 /

① 近代建築은 왜 失敗하였는가  
Form Follows Fiasco

尹 一 柱 譯 A5·216面 定價 4,000원  
근대건축의 오류를 날카로운 해안으로 비평한 이 책은, 건축인에게 깊은 충격을 줄 것이다.

② 建築의 第三世代  
Third Generation

崔 武 革 譯 A5·264面 定價 5,000원  
양 세계대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의 건축가를 선택, 개인의 사상과 계획안 및 건축을 소개하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에 관해서 스스로의 해석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③ 轉換期的 建築  
Architecture in Transition

趙 昌 翰 譯 A5·216面 定價 4,000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 계획가의 한 사람인 독시 아디스는 현대의 건축과 건축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인간 정주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및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建築心理  
Psychology for Architects

許 東 國 譯 A5·208面 定價 4,000원  
이 책은 조명·음향·공간시각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각도의 건축환경 건축심리학의 강의를 교재로 적합하다.

⑤ 建築宣言文集  
Programs and Manifestoes on  
20th Century Architecture

李 賢 浩 譯 A5·244面 定價 5,000원  
근대건축의 이론과 배경으로 선인문과 강령을 엄격한 귀중한 자료로서, 건축인의 필독서.

⑥ 建築의 外部空間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

金 晶 東 譯 A4·188面 定價 4,000원  
건축의 공간성 계층·외적측면에서 고찰한 이 책은, 건축의 내외의 정서를 체계있게 정리하여 건축가에게 창작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⑦ 黃金分割  
Golden Section

俞 吉 瀟 譯 A5·256面 定價 5,000원  
황금비의 여러 이론을 상세와 그 분석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가·공법디자인·화가 등 모든 예술가들에게 원대조화의 기본 원리로서 비례법칙을 보여주고 있다.

⑧ 身體·知覺 그리고 建築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李 好 璣 譯 A5·200面 定價 4,000원  
건축적 공간이 身體·知覺에 미치는 감정과 의의를 기초적으로 다른 새로운 심리학적 건축서.

圖書出版  
技 文 堂  
서울특별시  
중구 경교로 154  
TEL 7766441  
12359114  
23591451  
5191

◎ 10월 2月中 出刊 豫定 /